

도시특성과 축제

-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축제변화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이 덕 구*

(e-mail: dklee0618@hj.ac.kr)

目次

1. 서론
2. 아오모리현(青森県)의 문화진흥정책
3. 아오모리시(青森市)의 특성과 전통축제의 변화
4. 히로사키시(弘前市)의 특성과 새로운 축제의 생성
5. 결론

1. 서론

근래 일본의 축제에는, 전후(戰後) 회사나 동회와 같은 선택연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사회로 일본사회가 이행하면서 조나이(町内)의 지연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행사로서의 전통축제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대신 지역활성화의 방편으로 축제가 활용되어 관광목적의 이벤트성 행사로 전통축제를 재편성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지방도시의 생존경쟁이 심화되어, 수많은 지방 도시들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또 지역(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역(도시)마케팅의 도구로서, 관광목적의 이벤트성 축제들을 속속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오늘날 일본의 축제는 전통축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축제(이벤트)를 만드는 경우에도 관광 상품화가 주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경향, 즉 전통축제의 변용과 새로운 축제의 생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특성이 이러한 변화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¹⁾

본고에서는 축제의 관광 상품화 과정에서 지역(도시)특성에 따른 변화의 차이나 또는 성격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즉, 상업도시와 전통도시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도시를 선정하여 이러한 도시특성의 차이가 축제의 관광 상품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두 축제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축제의 관광 상품화가 도시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례로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연구가 도시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지로 우선 인구감소와 과소화가 일어나면서 지역활성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을 고르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아오모리현(靑森縣)을 선정하였다. 또한 아오모리현에서 도시의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최대의 상업도시인 아오모리시(靑森市)와 최고(最古)의 전통도시인 히로사키시(弘前市)를 선택하고, 대상축제로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靑森ねぶた祭り)와 요사코이츠가루축제(よさこい津軽祭り)를 선정하였다.²⁾ 현지조사는 2008년 여름의 방학기간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 소노다(蘭田 1967) 이전의 일본의 축제 연구는, 주로 일본 민속학자들에 의해 신사(神事)나 불사(仏事) 그리고 전통적인 제례를 대상으로 축제의 종교적 의미나 예능의 전통적 성격의 측면이나, 혹은 축제의 발생과 형태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상징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1960년대 들어 소노다의 연구에서 축제에 지역사회 개념이 도입된 이후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분야에서 신사축제가 아닌 도시축제가 실증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축제의 관광화에 따른 변화실태와 사회적 의미, 기능, 성격 변화 등을 논한 연구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의 제집단간 대립과 갈등을 논한 연구, 참여자의 형태와 의식의 변화를 논한 연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와자키(和崎 1988)와 요네야마(米山 1974, 1979)는 도시의 축제가 지역사회의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연구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했으며, 와자키(和崎 1988)와 김양주(1994)는 축제를 사회의 시대적 변동과 현대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축제의 변화를 다룬 연구로는 이시이(石井 1994)와 아나미(阿南 1999), 아리스에(有末 2000), 마쓰타이라(松平 2000) 등이 있다. 그러나 도시특성에 따른 축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2) 일본에서는 '마쓰리'라는 말이 한국에서의 축제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벤트형 축제나 상업적 축제 그리고 음악제나 페스티벌로 불리는 것도 마쓰리로 불리고 있다. 단순히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마쓰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쓰리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제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 아오모리현의 문화진흥정책

이른바 ‘21세기 국토의 그라운드디자인—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라는 5전총(五全總)³⁾계획하의 동북(東北)은, 풍부한 삼림을 가진 산지와 분지가 구성하는 산간부와 변화가 심한 해안선등의 지리적 특징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살려,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여, 조화를 이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전개되는 ‘프런티어’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国土庁計画・調整局 1999, 361쪽).

또한 문화 창조에 관한 시책의 하나로서 관광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살려 매력있는 관광지를 형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산업진흥이나 고용 창출로 연결시키거나, 지역의 활성화나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환경이나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지방의 거주환경이나 식생활 문화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문화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도시 및 농산어촌 등이 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국제관광과 국내관광 등의 진흥을 향한 시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앞의 책, 197쪽).

따라서 아오모리현을 비롯한 일본 동북지방에 있어서는 ‘관광’이 지역개발의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문화의 창조 및 활성화의 수단으로서도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5전총(五全總)에서의 지역활성화 정책은, 지역개발방침이 공업화나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문화진흥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역문화를 창조하면서 동시에 지역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에 한층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북지방에 있어서는 제조업이나 공공사업보다 문화와 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오모리현(青森県)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아오모리현문화진흥비전

3) 일본의 전국종합개발계획(全總)은 국토종합개발법에 따라 책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1차 계획(一全總)은 도시과대화의 방지와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로 1962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2차 계획(新全總)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개발혜택의 전국적 확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국토이용의 재편성, 안정, 쾌적, 문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4개의 목적을 가지고 196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거주성과 생활의 우선, 그리고 지방의 우선을 표방한 3차 계획(三全總)은 1977년에 발표되었으며, 4차 계획(四全總)은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다극분산형국토형성’을 목표로 1987년에 발표되었다. 현재는, 글로벌시대, 인구감소·고령화시대, 고도정보화시대의 도래 등의 시대적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계획(五全總)으로서 ‘21세기 국토의 그라운드디자인—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가 1998년에 발표되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1997년)’이라는 계획을 세워 각종 문화진흥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문화진흥비전은 현민(縣民)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를 통해 정신적 윤택함과 감동 있는 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는 영역도 생활문화로부터 예술문화, 문화유산, 문화적인 환경, 문화적인 산업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오모리현문화진흥비전’은 문화진흥의 기본시책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생활 문화에의 충실(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적 윤택함과 감동 있는 생활을 실현하는 것으로, 아오모리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의식주에의 충실, 시간적·공간적 여유의 창출, 남을 위한 배려, 평생학습 기회의 증대를 도모한다.) 2)예술문화의 진흥(신진예술가의 창작발표활동 등에 대한 지원, 예술문화를 지지하는 지도자나 학예원이나 문화시설 전문직원 등의 인재의 육성에 노력, 예술문화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 학교의 문화활동지원, 전국규모의 예술문화의 교류활동에의 참가에 대한 지원, 「종합예술파크」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의 정비, 연습·발표의 장소의 확보, 뛰어난 예술 문화에 접할 기회의 창출, 일류예술가에 의한 뛰어난 예술 감상기회의 제공이나 교류장소의 창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 국내외의 예술가의 유치나 국제적인 교류 이벤트의 개최를 도모한다.) 3)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활용(문화재의 조사나 기록을 실시하여 문화재 지정을 계획적으로 진행, 문화재 보호·연구단체 지원,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 유적을 역사 공원으로 정비, 사적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의 보전, 문화유산시설을 네트워크화 하여 역사·문화에 접할 기회를 늘린다, 도사미나토(十三湊)유적을 시작으로 하는 고대·중세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 문화재의 조사·연구나, 성과의 공개·전시에 노력, 전통예능·기술의 후계자 양성의 지원에 노력한다.) 4)문화적인 환경의 정비(아름다운 자연의 보전과 육성, 자연을 소중히 하고 향수하는 사상의 보급, 문화를 존중하는 기풍을 양성한다.) 5)문화적인 산업의 진흥(종래의 전통공예산업 등이 가지는 문화적인 가치에 주목해 그 활성화를 진행시키는 것 외에 지역산업에 문화적 시점을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점에서, 역사·풍토 등 아오모리현이 자랑하는 문화에 주목한 관광의 진흥을 도모,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 역사적 문화유산이나 문화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오모리현의 문화성을 중시한 관광의 진흥에 노력한다.)을 현민(縣民), 기업, 행정의 삼자가 각각의 역할을 완수하면서, 제휴해 문화 진흥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⁴⁾

아오모리시는 2006년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2015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하는 ‘아오모리시종합계획’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사회경제환

4) 青森県ホームページ(<http://www.pref.aomori.lg.jp/bunshin/jigyoun/vision/mokuzi.html>)참조.

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아오모리시가 문화와 환경에서 새로운 활력산업을 창조하고 거점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거점기능을 높여 새로운 교류를 창조한다, 2) 풍부한 자연을 지키고 키워 새로운 생활환경을 창조한다, 3) 매력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활력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 4)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조한다, 5) 풍부한 감성을 길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실천사업으로서, 네부타축제(靑森ねぶた祭り)를 비롯하여, 조몬의 역사마을(縄文の里)·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유적, 중세의 역사마을(中世の里), 코마키들유적(小牧野遺跡)·타카야시키훈관유적(高屋敷館遺跡) 등의 고유한 전승문화를 활용하여 체험형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네부타축제를 중심으로 기존자원의 세계화에 전력을 쏟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직결되는 체재형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⁵⁾

히로사키시(弘前市)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고도(伝統古都)이자 조카마치(城下町)⁶⁾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민의 자긍심으로 히로사키네부타축제(弘前ねぶた祭り)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의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1994년 ‘대점법(大店法)⁷⁾’ 완화이후 중심시가지의 쇠퇴를 비롯한 원도심이 급격히 쇠퇴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여기에 대응하여 1986년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중심시가지의 활성화프로젝트로 ‘셰이프 업(shape up) 마이타운계획’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제2차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었다. 1차 사업이 도로, 공원 등의 정비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계획이었는데 비해, 2차 계획은 활성화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에리어로 도테마치주변지구(중심시가지)를 선정하고, “시민이 교류를 넓혀, 정보나 문화에 접촉함으로써 시가지에서의 하루를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 만들기”, “역사나 풍토가 가져다주는 고유의 경관이나 산업, 문화를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기본방침아래 1)매력적으로 개성 넘치는 점포나 상가의 형성 2)보행자 유람공간의 정비 3)정보발신(교류거점의 정비) 4)거리를 즐기는 장치(이벤트의 도입) 등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생활문화 창조

5) 靑森市홈페이지(<http://www.city.aomori.aomori.jp/totalproject/index.html>)참조.

6) 봉건영주의 거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도읍지(城市). 현대의 주요도시 대부분은 근세의 城下町에서 출발하였다.

7) 大店法(대규모 소매점포법)이란 “소비자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포의 사업 활동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변의 중소 소매업자의 사업 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해, 소매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시행된 법률이다. 1994년에 완화되었다가, 1998년에 大店立地法(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의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大店立地法은 대형점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법률이다(http://www.jcp.or.jp/faq_box/001/2000729_faq_daitenhou.html)참조.

도시 확충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대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대자연과 일체가 되는 ‘슬로 라이프’의 도시생활 만들기로 지역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업으로 시라가미산지(白神山地)의 대자연을 자원으로 다양한 자연체험관광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財団法人日本ファッション協會 2008, 92-94 쪽).

3. 아오모리시(青森市)의 특성과 전통축제의 변화

3.1 아오모리시(青森市)의 특성

아오모리시는 혼슈(本州)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아오모리현청소재지로서 취업인구의 80%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업도시이다. 또한 옛 항구도시라는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근대도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인구 비율(2005년 조사)은 제1차 산업 5,724명(4%), 제2차 산업 23,147명(16%), 제3차 산업 111,754명(80%)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계속 감소되는 대신 서비스업(상업·유통업)이 비대해지고 있어, 항만과 상업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일찍부터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⁸⁾

아오모리시의 역사는 우토우무라(善知鳥村)이라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땅에 근세(1625년, 寛永2年)에 들어 항구가 새롭게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에도말기에는 에조(蝦夷)지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청어와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목재 등의 중계항구로서 크게 번성하였기에 이를 배경으로 타 지역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이입되었다(小松 2000, 2쪽).

근세의 아오모리는 항구를 출입하는 상품(주로 쌀, 된장, 소금, 생선류, 목면류, 유류, 목재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중매무역업자(間屋)가 중요한 경제기반이 되는 상업도시로 발전한다. 개항 당시 1626년의 호수(戶數)는 1057호(軒)이었고, 1864년에는 1985호(軒) 총 인구 9991명이었다. 이들의 생업은 다양하여 상공업 등의 직종은 100가지를 넘어서고 있었고, 현재의 코메마치(米町), 시오마치(塩町)등과 같은 마을 이름도 같은 직종의 상인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또 주조(酒造)업도 발달하여 1804년에는 주조상(酒造商)이 17호(軒)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주조법도 발달하였다(青森市史編集委員会編 2004a, 286쪽).

8) 아오모리시홈페이지, 青森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画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lan/pdf/jigyo020.pdf>) 참조.

이러한 아오모리의 중매무역업자(間屋)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층은 히로사키번(弘前藩)이나 센다이번(仙台藩) 혹은 하코다테번(函館藩)에 납품하는 특권상인(御用達)으로서 신분(苗字帶刀)⁹⁾상의 특권을 누리는 정치적인 상인이 많았다(青森市史編集委員会編 2004a, 672쪽).

1873년에는 홋카이도로 연결되는 세이칸(青函)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1891년에는 토호쿠(東北)본선이 개통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또 항구도시로서의 아오모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윽고 1898년, 인구 약 28,000명의 아오모리시가 탄생했다. 이후 1905년에는 오우(奥羽)본선으로, 아오모리-후쿠시마(福島)간이 개통되고, 1908년에는 세이칸(青函) 정기연락선이 취항하는 등, 물류의 거점이자 상업도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는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킬 조건이 메이지 시대에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 기반에도 변화가 일어나 종래의 수산업과 중개무역의 기반위에 새로이 광공업 및 된장, 간장을 비롯한 주조업과 통조림가공업 등의 각종제조업의 발달과 해외무역의 성립과 함께 금융업도 전개되어 상업·항만도시로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青森市史編集委員会編 2004b, 4-6쪽).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아오모리시민의 성향은, 사람·물건·정보가 집결되는 거점도시이자 교류와 무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구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도시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유행과 사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감각이 뛰어나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짧은 여름에 비해 겨울은 길고 눈이 많은 자연 환경적 영향으로, 긴 겨울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짧은 여름동안에는 매우 활동량이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⁰⁾ 또한, 개항 이후 줄곧 상업, 유통업, 운송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제일 많아서 상인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아오모리시정(青森市政)은 때때로 상인들의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특징도 있으며, 현재도 아오모리시의 정치적 실세는 상인층이다(青森市史編集委員会編 2006, 23쪽).

1985년을 정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

9) 에도시대, 평민이 자기 성(姓)을 쓰고 칼을 허리에 차는 일. 무사(武士)의 특권이었으나, 뒤에는 가문(家格)이나 공로에 의하여 평민(村役人이나 大商人)에게도 허용되었다(新村 1991, 2478쪽).

10) 아오모리시홈페이지(<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ro/proc01.html>)와 네부타축제홈페이지(<http://www.nebuta.co.jp/shouwa/rekisi/top.htm>) 참조.

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일어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투자력 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 내부적으로는 교외개발로 인한 도심인구의 교외유출로 도심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심시가지는 핵으로 집약화·집중화하는 콤팩트한 도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¹¹⁾

3.2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변화와 특징

아오모리현(靑森縣) 일대에서 행해지는 네부타축제는, 현(縣)의 남부지역을 제외한 서부 쓰가루(津輕)지역과 동부 시모기타(下北)지역에 편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날 아오모리시(靑森市)에서 연행되고 있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靑森ねぶた祭り)’는, 아오모리현(靑森縣) 일대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네부타축제의 하나로, 전후(戰後)에 관광 상품화를 의식하여 탄생한 새로운 주최축에 의해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대 이벤트로 변화된 행사로서 동북(東北)지방의 대표적 여름축제이다. 아나미(阿南 2003), 미쓰이(三井 2006), 이덕구(2009)를 중심으로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변화와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히로사키시의 네부타는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이 강해 오늘날까지 전통형태의 원형을 고수하면서 아직 조나िका이 등의 자연조직이 축제조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阿南 2003, 265쪽), ‘아오모리의 네부타(靑森ねぶた)’는 전후(戰後)의 산업화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행정기관(市)과 상공회의소가 축제를 주도하면서 변화를 유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¹²⁾

이 새로운 축제조직은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상제도의 도입하여 경쟁구도를 확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부타의 크기 제한이 폐지되어 초대형네부타가 등장하였고, 네부타의 작풍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상업화가 강화되어 유료관람석이 설치하였고, 더 많은 집객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거나 예전에 없던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불꽃놀이, 미스네부타콘테스트)되거나 개편(네부타의 해상운행)되기도 하여 축제의 성격은 세속적 측면이 강화된 현대적 이벤트로 변화되었다.¹³⁾

11)靑森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画(<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lan/pdf/jigyoo20.pdf>)참조.

12) 필자가 2008년 히로사키시를 필드워크 하였을 때, 실제로 히로사키사람들은 아오모리의 네부타를 ‘근본 없는 축제’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13) 1948년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민요대회나 연예, 무용,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실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주민화합형 행사였다. 그러나 1964년부터는 네부타만을 연행하는 전문화된 관광축제로 변화되었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일본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요 대회나 연예회 같은 잡다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개성을 대변한다는 관광화의 기본여건을 충족시켜

관광 상품으로의 축제의 성격변화는 축제참가자의 참가형태와 의식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진1) 2008년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서의 하야시



참가자의 중심이 바게토¹⁴⁾에서 하네토¹⁵⁾로 이행되고, 참가형식이 지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참가형식이 되었다. 조나이를 비롯한 지연(地縁)집단이 네부타 운행의 주력이었던 시기에는, 자신이 소속하는 각 조나이의 네부타 앞에서 오도리를 연행하였지만, 관광화와 함께 이러한 제한은 없어지고, 어느

주지 못하므로 외부 관광객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축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네부타의 해상운행은 전전(戰前)까지 나누카비(ナヌカビ, 음력7월 7일)에 쓰쓰미강(堤川)에서 연행되었던 '네부타나가시(네부타 흘려보내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1948년에 시작되었다. 뛰어난 네부타를 골라 작은 배에 태워, 밤의 무쓰만(陸奥灣)을 운항하는 행사로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이덕구 2010, 437-438쪽).

14) 바게토는 축제에 가장(仮装)하여 참가하는 사람들로서 우스꽝스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네토와는 달리 네부타의 최전방에서 행렬의 길잡이(露払い)역할을 담당하며, 다이쇼(大正) 초기까지의 아오모리네부타에서는 하네토보다 바게토가 많았다고 전해지지만, 축제가 관광화하면서 하네토의 증가와는 반대로 수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이덕구 2009, 154쪽).

15) 하야시(囃子, 반주)나 가게고에(掛け声, 구령)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로서 하네토의 춤추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단순히 폴짝 폴짝 뛰는(하네루;跳ねる)것이다. 단지 뛰어오르는 것이 전부이기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주취 측은 의도적으로 하네토로의 참가를 유도하였기에 축제가 본격적으로 관광화 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축제의 꽃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이덕구 2009, 151쪽).

네부타든 지역민이나 관광객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오도리꼬(하네토)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지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참가형식이 되었다. 즉, 네부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전전(戰前) 지연중심의 공동체사회에서 전후(戰後) 선택연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로 일본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공동체축제의 참가자인 집단을 개인으로 분산시킨 것이다. 따라서 전통축제에서는 신앙적 의미나 공동체적 의미가 가장 주도적인 참여의식이고, 그 다음 개인적인 희열이나 만족이 부차적인 의식이었으나 신과 공동체적 의무가 사라진 오늘날의 관광 상품화된 축제에서는 자신의 참여가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시민 의식’과 함께 개인적인 희열이나 즐거움이 가장 전면에 부각되었다.

사진2) 2008년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서의 네부타 행렬



그리고, 대형네부타의 참가단체의 주류가 조나이와 같은 지역사회집단에서 행정단체와 기업, 학교 등으로 이동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축제의 관광 상품화정책에 의해 네부타가 대형화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전면에서 주도하게 되었고 또한 네부타의 제작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운행경비의 증대와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라 조나이와 같은 지역사회집단은 자연스럽게 축제로부터 멀어지고, 행정기관이나 특히 기업이 운행단체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축제의 현장이 홍보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은 지역의 리더로서의 사명감과 다음 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목적의식에서, 기업은 홍보뿐만 아니라 참가하다가 안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오해를 받아 주식이 떨어질 우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학교 또한 지역의 문화행사에 적극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하여 축제는 기능하고 있다. 네부타에 제작단체의 이름을 잘 보이는 곳에 나타내고 있었으며, 네부타와는 별도로 자사의 생산품을 PR하는 광고탑을 제작하여 운행에 참여시키고 있었고, 네부타의 운행에 관계하는 히키테(引き手)의 의상(法被)에도 단체명과 광고문구가 있었으며, 주최측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부채나 돈을 받고 파는 각종 축제용품 및 기념품, 거리 곳곳에 세워진 현수막 등, 가는 곳마다 협찬기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아오모리시는 기업을 끌어들이며 네부타축제를 더욱 불만한 것으로 만들어 더욱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목적과 기업은 네부타에 참여하여 높은 광고 및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 관광상품으로 변화된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靑森ねぶた祭り)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는,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들 수 있다.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의 참여자에는 자발적 참여자 외에 주최 측의 유도장치에 의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는 부류도 있었다. 대학생이 체육수업을 대신하여 축제에 참가하고 학점을 이수한다던지, 기념품판매원으로, 혹은 네부타의 히키테 등으로 고교생을 고용한다던지, 네부타를 출전한 기업에서 사원들의 참여를 강권하고, 참여자의 규모를 확보하여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하네토를 고용하는 등의 유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기업과 기타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을 비롯한 공공기관들과 주민들이 참여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관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주민이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기업의 네부타축제의 참여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민들은 네부타에 대한 긍지와 강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다. 네부타가 자신들의 문화전통을 대표하고, 외부에 제시되는 자신들의 이미지이며,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식과 결부되어 시민으로서 축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네부타축제가 아오모리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량소비구조를 갖추고 있다. 축제기간(6일)에 300만이 넘는 관객동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효과는 208억 8천만 엔(약 3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다.¹⁶⁾ 이와 같이 아오모리네부타축제는 대량소비구도를 갖추

16)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경제효과를 JAWS 2005년 보고자료에 의하면, 축제 경비(213), 아오모리시 내숙박객(4,483), 시외숙박객(5,400), 아오모리시민소비효과(2,553), 네부타운행경비 등(413), 직접효과합계(13,080), 파급효과(7,800), 총효과(20,880), 단위(백만 엔) 으로 되어있다 (三井 2006, 15쪽).

고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과소화와 시가지의 공동화로 인한 구 상가의 쇠퇴 등으로 침체된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려는 시행정의 주요한 관광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 히로사키시(弘前市)의 특성과 새로운 축제의 생성

4.1 히로사키시(弘前市)의 특성

히로사키시(弘前市)는, 아오모리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라가미산지(白神山地)를 근원으로 하는 굴지의 곡창지대인 광대한 쓰가루(津輕)평야를 바탕으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따라서 제 1 차 산업의 취업자비율(2005년 조사)이 17.6%로 전국평균 5.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¹⁷⁾

히로사키의 역사는 17세기 초(1603年) 이신(為信)이 쓰가루(津輕)지역을 통일하고, 초대 쓰가루번주(津輕藩主)가 되면서 새로운 성(城)의 건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 영주가 존재하는 조카마치(城下町:성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로서, 쓰가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유신의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 무사계급의 몰락과 함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설치된 현청도 이윽고 아오모리로 옮겨감에 따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아오모리로 넘겨주게 되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히로사키시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이 1개교, 사립대학이 2개교, 사립단기대학(2년제 대학)이 2개교, 방송대학이 1개교, 전수학교(2년제 전문학교)가 8개교가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 수가 약 11,000명에 이르는 아오모리현은 물론이고 동북지방에 있어서 굴지의 학원도시(교육도시)로 지적자원의 풍부함과, 번정기 이후 계승되어 온 역사적 자원(번정시대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원거리, 전통 건축물, 메이지·다이쇼기의 서양식 건축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통고도(傳統古都)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성향은 내륙에 위치한 전통 도시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아오모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나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의 진전, 자동차 보급을 배경으로 일상생활권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교외의 개발, 특히 1994년 ‘대점법(大店法)’ 완화개정 이후, 교외에 대형유통업체가 집적하고, 주택이나 공

17) 弘前市 홈페이지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oukei/soukei/soukei.pdf#page=12>).

공시설의 교외입지 등의 요인으로 의해, 중심상가의 대형점포의 이전이나 폐업이 계속 되어, 빈 점포도 발생하는 등 쇠퇴 경향에 있다.

그림1)은 중심시가지의 인구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2)는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보행자 통행량을 나타낸 수치이다. 여기에 따르면,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보행자 통행은 1989년 조사개시 이후 감소 경향에 있고, 2007년의 과의 비교해 보면 그 감소폭이 64.1%에 이르러 공동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점법 완화 이후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중심시가지로부터 철회하여, 교외로 이전 개업하면서 넓은 매장과 저가격, 편리한 주차장,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확보 등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한 쇼핑공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림1) 히로사키시 중심시가지인구 추이

<弘前市 中心市街地活性化計画 참조>

그림2)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보행자 통행량(평일과 휴일의 평균)

<弘前市 中心市街地活性化計画 참조>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히로사키시는 2000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어 거리를 즐기는 장치로서의 구체적인 이벤트가 6월에는 요사코이 쓰가루축제(よさこ

い津軽まつり), 7월에는 모모이시납량야시장축제(百石町納涼夜店まつり), 8 월에는 역전여름축제(駅前夏まつり)、9 월에는 도테마치컬쳐로드(土手町通)カルチュアロード)등이 속속 탄생하였다.¹⁸⁾

4.2 요사코이쓰가루축제의 생성과 특징

‘요사코이축제’¹⁹⁾는 코치시(高知市)의 ‘요사코이나루코축제(よさこい鳴子祭り)’를 발상으로 한다. 이 축제는 오도리의 스타일이나 의상, 음악의 자유로움과 참가자에 의한 ‘보여주는’(内田 2000)축제로서 1954년에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코오치상공회의소의 주도로 시작된 축제이다. 이것이 1992년 코오치의 ‘요사코이 축제’를 보고 감동한 홋카이도의 한 대학생에 의해 삿포르에 전파되어 ‘코오치의 문화와 홋카이도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축제 ‘요사코이소랑축제(よさこいソーラン祭り)’가 탄생되었다.

이 ‘요사코이소랑축제’의 성공에 따라 2006년 시점으로 전국각지 약 200개소 이상에 요사코이형식의 축제가 전파되었다(岡崎 2006, 3쪽).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도 아오모리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요사코이형식의 축제로서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 현내(県内)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덕구(2009)를 중심으로 요사코이쓰가루의 생성배경과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술 하였듯이 히로사키시의 중심시가지 도테마치(土手町)는 1994년 ‘대점법(大店法)’ 완화개정 이후, 교외에 대형유통업체가 집적하고,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교외입지 등의 요인으로 활기를 잃어가자 히로사키시는, 아오모리시와는 달리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이 강해 전통축제인 네부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이벤트형의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였다. 요사코이쓰가루축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중심시가지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인연합회가 주

18) 弘前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画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igaichi/pdf/01.pdf>)참조.

19) 요사코이축제의 핵심요소는 행진차, 음악, 오도리(춤)이다. 행진차는 지카타샤(地方車)로 불리는 데 열을 지어서 춤을 추는 각 오도리코대의 선두에서 화려한 장식을 하고 음악을 울리며 천천히 행진하는 차를 말한다. 음악에서는 특히 나루코(鳴子)가 중요하다. 나루코(鳴子)란, 조그마한 주걱과 같은 모양을 한 판자의 양쪽 부분에 두 개의 작은 판자를 대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일종의 악기이다. 요사코이축제에서는 양손에 반드시 들고 짹짹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어야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다. 또한 음악에는 그 시기의 유행에 따라, 참가팀의 개성에 따라 삼바, 록, 재즈, 레게,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편곡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부분에 ‘요사코이나루코부시(よさこい鳴子節)’를 삽입하여 편곡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으로 전파된 요사코이축제가 그 지역에 스며있는 민요를 어렌지 함으로서 각 지역의 지역성을 살리는 결정적요소로 활용된다. 오도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음악과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며, 보통 퍼레이드형과 무대형이 있다.

도하는 축제이다.

요사코이쓰가루에의 참가팀은 오도리와 의상을 통해 지역성을 표출하고, 지역 간의 연대감을 창출하고 있다. 2008년의 축제에서 대표적인 예로, 아오모리 하나아라시사쿠라구미(靑森花嵐桜組)의 오도리는, 히로사키시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서의 이와키산신(岩木山神)에 대한 믿음을 ‘기도하는 시골아낙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와키강(岩木川)을 타고 흐르는 드넓은 평야의 사계절을 수차례의 의상변화(푸른색, 흰색, 다홍색 등)를 통한 오도리로 표현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오도리 속에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히로사키의 지역성을 표출하였다.²⁰⁾

사진3) 2008년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축제의 시가지 공연



이처럼 요사코이쓰가루는 타 지역(삿쵸)으로부터 도입된 이벤트로서 지역의 정체성과는 본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오도리를 통하여 지역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요사코이쓰가루에 참가하는 오도리꼬집단에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나이를 구성원(構成縁)으로 하는 팀은 지극히 적고, 오도리가 좋아서 모여든 동호회 팀과 같은 ‘선택연(選択縁)’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20) 이 밖에도 고힌라구혼즈(極楽乱ず)는 히로사키시에서 매년 연행되는 전통축제인 히로사키네푸타 축제(弘前ねぶた祭り)를 주제로 하여, 네푸타 속의 장면 장면을 연상시키는 오도리를 연출함으로써 지역성을 표출하였다(이덕구 2009, 201쪽).

요사코이쓰가루는 참가자격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시민참가형 축제이다. 또한, 요사코이쓰가루에는 교육도시로서의 히로사키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참여팀에는 학교나 유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후원단체²¹⁾로는 전시(全市)의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지역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표1) 2008년 요사코이쓰가루 참가팀의 연별(緣別) 구성표

구성緣	참가팀수	참가인수
지역(町内会)	2	45
동호회	20	702
학교(유치원)	8	239
직장	1	30
합계	31	1016

<이덕구 2009, 191쪽 참조>

또한 참가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2)에서와 같이 축제의 개최지인 히로사키시를 근거지로 하는 팀은 전체 참가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내(県内)의 주변도시에서 모여든 팀이 더 많아, 축제는 개최지 히로사키시를 넘어 아오모리현 전체와 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사코이쓰가루축제는 현내(県内)의 여러 도시들의 연계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2) 2008년 요사코이쓰가루 참가팀의 지역별 분포

근거지	참가팀수	비고
弘前市	13	花嵐桜組 등
青森県	16	青森市, 十和田市, 五所川原市 등
그 밖의 지역	2	北海道函館市, 福島県郡山市

<이덕구 2009, 192쪽 참조>

요사코이쓰가루축제에는 관객들을 축제 속으로 끌어 들이는 장치인 소오도리(総躍り)²²⁾가 마련되어 있어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 그리고 동네사람과 외부 사람의 상호작용과 상호침투성 그리고 개방성이 요사코이쓰가루축제에도 잘

21) 후원단체에 관한 상세는 이덕구(2009, 182쪽)를 참고할 것.

22) 소오도리(総躍り)란 축제의 피날레로서 관객과 오도리꾼들이 모두 함께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소오도리(総躍り)에 사용되는 음악과 안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누구나 따라 하기 용이한 비교적 단순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덕구 2009, 188쪽).

나타나고 있다.

오도리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의식에는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오도리꾼들의 참여의식은 ‘재미’, ‘행복’, ‘긴장(텐션)’, ‘무아지경’으로 요약될 수 있고, 관객과 오도리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에 빠져 일시적으로 공동체로 매몰되는 행복감을 느끼면 일상적으로 억압받던 것을 탈출해 내면의 ‘자기실현’을 이룩하는 것이다. 아오모리네부타축제가 자신의 참여가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더 강조된다면, 요사코이쓰가루는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행위’로서의 개인적인 몰입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상으로 상업도시와 전통도시라는 도시의 성격에 따라 축제의 관광상품화의 과정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두 축제에 나타난 특성을 표3)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3) 아오모리시와 히로사키시의 특성과 아오모리네부타축제와 요사코이쓰가루축제의 특징비교

구분	공동점	차이점	
		아오모리시 아오모리네부타축제	히로사키시 요사코이쓰가루축제
도시 특성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과소지역	상업도시, 항구도시, 개방적	전통도시, 교육도시, 보수적
축제의 특징	배경 성격 인구감소, 중심시가지공동화 관광 상품화, 도시마케팅	전통축제를 일찍부터 변화시켜 관광 상품화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축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관광축제를 도입하였다.
주최 조직	중층적이며 복합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 상공회의소, 관광컨벤션협회,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전시(全市)의 포괄적 조직으로 구성	중심상가상인연합회가 주도적 역할하며, 전시의 교육위원회(23개)가 후원한다.
참가 자 형태	자유참가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및 단체로도 참가할 수 있고, 오도리, 상징물(네부타), 하야시(음악)와 같은 전통에 입각한 정해진 룰과 방식에 참가자가 귀속된다.	팀(단체)을 이루어 참가하고, 오도리, 패션, 메이크, 음악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창조적 참가가 가능하다.

	의식	오락과 재미, 자기 만족(행복), 존재감 확인, 마을 만들기의 시민의식(참여와 봉사정신)	자신의 참여가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강하다.	개인으로서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식’이 강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특징	관광상품화된 아오모리네부타축제는, 과거 자연중심의 공동체축제에의 참가자인 집단을 개인으로 분산시켰지만,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요사코이축제는 분산된 개인을 다시 연결시키고 있다.		
관객	관객의 참가가 용이한 개방성이 확보되어 있다.	오도리의 용이성으로 관객도 쉽게 참가가 가능하다.	관객의 참가 장치인 ‘소오도리(総躍り)’가 마련되어 있다.	
그 밖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구도(시상제도)를 갖추고 있다. 홍보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유도장치가 있다. 도시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도리와 의상을 통해 지역성을 표출하고, 여러 도시들이 연대감을 창출하고 있다. 	

5. 결론

아오모리시는 당초부터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항구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인 네부타를 보다 쉽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화하면서 상업적으로 재조직하였다.

히로사키시는 유서 깊은 전통도시로서, 또 교육도시로서의 보수성, 여기에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이 강하여, 시가지공동화현상에 전통축제를 개편하여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축제들을 히로사키시 중심지에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교육도시라는 특색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요사코이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게 한 요인이며, 또한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아오모리현내(県内) 여러 도시의 요사코이 중에도 가장 활성화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적 풍족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축제는 앞으로도 관광객의 안전과 집객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될 것이

다”라고 하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관계자와 “요사코이쓰가루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보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벤트)을 실시하여 상점가를 활성화시켜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며, 요사코이보다 더 집객력이 높은 이벤트가 있다면 관심은 다시 그 쪽으로 모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요사코이쓰가루 주최 측의 축제의식에서도 도시(도시민)의 특성과 축제와의 관계성을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일본 지역도시들의 공통적인 담론으로 존재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축제가 구체적으로 관광 상품화하는 과정은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사례에서는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전통도시와 상업도시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일본도시축제의 관광상품화 과정의 유형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시들의 성격구명과 그에 따른 상품화과정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와 한계를 가진다.

【参考文献】

- 이덕구(2009) 『공동체축제에서 관광상품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일본 아오모리네부타축제와 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일본 지역전통축제의 관광화와 시사점」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9-448
- 青森市史編集委員会編(2004a) 『新青森市史. 資料編 4』 青森市
- (2004b) 『新青森市史. 資料編 6』 青森市
- (2006) 『新青森市史. 資料編 7』 青森市
- 阿南 透(1997) 「伝統的祭りの変貌と新たな祭りの創造」 小松和彦編 『現代の世相⑤祭り& イベント』 小学館 pp.68-110
- _____ (2003) 「青森ねぶたの現代の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pp.263-299
- 石井研士(1994) 『都市の年中行事』 春秋社

- 金良柱(1994)「儀礼の動態と現代日本社会：四万十川流域社会における‘まつり’とその変化過程からのアプローチ」 東京大学 博士論文
- 有末 賢(2000)「現代の都市空間におけるメディアと祝祭」 日本生活学会編『祝祭の100年』ドメス出版, pp.261-282
- 岡崎直温(2006)『よさこいはよさこいじゃき』イープレス出版
- 国土庁計画・調整局(1999)『都市の年中行事21世紀の国土のグラウンドデザイン』時事通信社
- 小松和彦(2000)「ねぶた祭りの基本構造と構成要素」 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青森ねぶた誌』 青森市 pp.2-8
- 財団法人日本ファッション協会(2008)『生活文化創造都市推進会議-平成20年度活動実施報告書』 弘前市
- 藪田 稔(1967)「祭り参加の諸相と階層」 九学会連合 編『人類科学19』 27-57
- 新村出(1991)『広辞苑』 岩波書店
- 松平 誠(1999)「都市祝祭の現代的意味」 東京市政調査会編『都市問題』 第90巻第8号, pp.3-12
- _____ (2000)「都市祝祭論の転回：合衆型都市祝祭の再考」 日本生活学会編『祝祭の100年』ドメス出版, pp.199-216
- 三井 泉(2006)「地域文化と企業の関わりに関する経営人類学的考察-青森ねぶた祭りの事例を中心として」 『商学論集』 75巻1号 5-18
- 米山俊直(1974)『祇園祭-都市人類学ことはじめ』 中央公論社
- _____ (1979)『天神祭-大阪の祭礼』 中央公論社
- 和崎春日(1988)「都市祭礼における異化と同化：都市祭礼研究の方法論をめぐって」 吉田 禎吾, 宮家準 編著『コスモスと社会：宗教人類学の諸相』 東京, 慶応通信69-90

인터넷자료

- <http://www.pref.aomori.lg.jp/bunshin/jigyoun/vision/mokuuzi.html>
- <http://www.city.aomori.aomori.jp/totalproject/index.html>
- http://www.jcp.or.jp/faq_box/001/2000729_faq_daitenhou.html
-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lan/pdf/jigyoo20.pdf>
-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ro/proc01.html>
- <http://www.nebuta.co.jp/shouwa/rekisi/top.htm>
-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lan/pdf/jigyoo20.pdf>
-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oukei/soukei/soukei.pdf#page=12>
- <http://www.city.hirosaki.aomori.jp/gyosei/keikaku/sigaichi/pdf/01.pdf>

要 旨

本稿は、商業都市と伝統都市を選定して祭りの観光商品化過程に都市性格の差がどのように影響を及ぼすのかを調べたものである。

青森市は、当初より多くの所から集まって来た人々によって形成された港市として商業が発達して商人たちが主導権を取った社会的特性を土台にして、より易しく伝統祭りであるねぶた変化を与え観光化しながら商業的に創り直した。

弘前市は、由緒のある伝統都市としてまた学園都市としての保守性と共にねぶたのメッカという意識が強くて伝統祭りの真正性を保ちながら(創り直すのではなく)、他方からの新しい祭りを弘前市の中心地に続々と登場させている。若い学生たちが多い学園都市という特色からヨサコイが県内で一番先に導入され、一番活性化されているのである。

青森市の青森ねぶた祭りと弘前市のよさこい津軽には参加の容易い開放性が確保されているという点と誰で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自由参加形式という共通した特徴もあるが、青森ねぶた祭りには踊りやネブタ、囃子のような伝統に即した決まったルールと方式に参加者が帰属される反面、よさこい津軽には踊りやファッション、メイク、音楽などを自ら決める創造的参加が可能で、そして、青森ねぶた祭りへの参加意識が自分の参加が地域共同体の発展に直結されると認識する「市民意識」が強く現われる一方、よさこい津軽の参加者は個人としての自己実現を目標とする「個人意識」が強いという違う特徴もあった。

キーワード：青森市、商業都市、弘前市、伝統都市、青森ねぶた祭り、よさこい津軽祭りの変化と生成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